



북한 최초의 2016 원산 에어쇼

글, 사진 | Wu Lilyu

원산 갈마국제공항

수십 년 간 독재정치의 결과로 북한은 전 세계에서 고립된 국가로 존재하고 있다. 관문인 평양 국제공항은 하루에 두 대 이하의 국제선만 운행되며, 그들은 전통적으로 소수의 해외 방문객에 대해서만 입국을 허용했다. 또한 지난 66년 동안 남북으로 분단된 한반도의 정치적 긴장상태로 북한 군대는 외부에 공개되지 않은 채 비밀스럽게 감춰져 있었다.

그사이 세 번째 세습 독재로 집권한 김정은 체제는 관광산업 진흥을 위한 정책들을 추진하고 있었다. 특히, 동해의 항구도시 원산에 중국시장을 겨냥한 스키장과 고급리조트를 건설하며 새로운 인프라를 구축하고, 국제공항 기준에 맞춘 '갈마(Kalma)국제공항'을 건설했다. 아직 국제노선은 운영되고 있지 않지만, 완공을 기념하며 북한 최초의 에어쇼를 9월 24일부터 25일까지 이틀간 이곳에서 개최했다.

미국의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이 악의 축(Axis of Evil)이라고 발언한 2002년부터 폐쇄정책을 강력하게 펴온 북한은 2015년 말 원산 에어쇼에 고려항공과 더불어 북한 공군의 참가를 확정하면서 관광객을 모집하기

위한 호객 행사를 시작했다. 그동안 쉽게 볼 수 없었던 북한 공군기를 미끼로 던진 것이다. 이번 에어쇼는 국제적인 행사를 통해 북한 공군을 세심하게 살펴볼 수 있는 중요한 기회로 해석되었다. 에어쇼 서포터들은 9월 22일 베이징의 한 식당에 모여 사전 미팅을 했다. 이곳에서 전 세계 항공 커뮤니티에서 활동 중이거나 각종 에어쇼에서 마주친 적 있는 친숙한 얼굴들을 만날 수 있었다. 이들은 9월 23일 베이징에서 평양으로 향하는 고려항공 Tupolev Tu-204 여객기를 이용했다. 평양에서 원산까지의 국내선은 Ilyushin Il-62M 또는 Tupolev Tu-154B, Tupolev Tu-134, Ilyushin Il-18, 62, 76, Antonov An-24 등의 항공기를 이용했다. 지금은 민항기로 잘 사용하지 않는 구소련 시절 제작된 오래된 항공기들이 많았다.

에어쇼 첫째 날(9월 24일)

맑고 깨끗한 하늘이 서포터들을 반겼다. 신축한 원산 갈마국제공항에도 도착한 후 보안검색을 위해 버스를 타고 이동했다. 일행은 한 시간의 대기 끝에 활주로 17-35로 건너가 에어쇼 개막식에 참석했다. 개막식 연설

은 한국어와 영어로 진행됐고 세계의 평화와 신뢰를 위한 축배를 들었다.

사회자는 관중들에게 1969년에 생산된 고려항공 Ilyushin Il-18이 활주로에서 엔진을 가동하는 순간을 소개했다. 북한 국내에서 유용하게 사용되고 있는 이 항공기는 총 110명의 승객을 수용할 수 있으며 거친 활주로에서도 운용할 수 있는 국내선용 여객기로 보였다. 낡은 비행기인 까닭에 미래에도 계속 운용될지는 미지수지만, 현재 북한 내에서 특별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었다. 4개의 프로펠러 엔진이 연기와 함께 힘차게 작동했다. 기체는 활주로 상공에서 날렵한 자세를 뽐내며 비행했다.

첫 비행을 마친 Il-18이 착륙하자 곧이어 MiG-29가 활주로 15에서 이륙하여 수직으로 급상승하는 모습을 선보였다. 푸른 하늘의 밝은 태양빛에 가려 항공기의 실루엣만이 간신히 보였다. 잠시 후 MiG-29는 저공비행을 이어갔다. 활주로를 박차고 상승하며 민첩한 배럴 롤(barrel roll)을 선보였으며 관중들 바로 위에서 배면비행을 하여 모두를 놀라게 했다.

에어쇼 프로그램은 민간항공기와 군용항공기를 번갈아 선보이도록 구성됐다. 다음 차례로 1985년에 제작

된 Tupolev Tu-134가 등장했다. 북한이 처음 개최하는 에어쇼임에도 불구하고 비행의 템포나 다른 여가 지 요소들을 균형 있게 잘 구성했다고 생각했다.

MiG-29가 비행하는 동안 Tu-134가 다른 곳에서 준비를 하고 있었다. MiG-29의 착륙과 동시에 이륙준비가 완료됐다. 여기저기 깃발이 바람에 펄럭이고 멀리선 대중적인 음악이 흘러나왔으며 튀김과자 냄새와 맥주냄새가 물씬 풍겨 관중들의 흥을 돋웠다. 이 모습은 다른 어느 국제 에어쇼와도 다르게 없어 참가한 우리들은 여기가 북한이라는 사실을 지속적으로 상기해야 했다.

Tu-134의 비행이 끝나자 Sukhoi Su-25 대전차 공격기가 비행을 시작했다. MiG-29의 비행에 필적하는 비행기술을 선보이며 에어쇼 첫날 오전의 환상적인 일정을 장식했다.

에어쇼 서포터즈 참가 그룹은 활주로 뒤쪽으로 에스코트를 받으며 점심이 준비된 터미널로 향했다. 몇 년에 걸쳐 항공투어를 준비해온 북한은 사진작가들이 해를 등지는 것을 선호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는 듯 했다. 오후 일정은 여성 파일럿이 조종하는 두 대의 MiG-21 전투기가 편대 비행하는 모습으로 시작했다. 이어 4개의 엔진이 후미동체에 장착된 Ilyushin Il-62 여객기가 저공비행을 선보였다. Sukhoi Su-25는 오전과 달리 3대로 구성된 편대비행을 실시했다. 이어서 1985년 서독에서 비밀리에 수입한 것으로 알려진 Hughes MD500 헬리콥터 2대가 시범 비행을 펼쳤다.

첫날 에어쇼는 Ilyushin Il-76 중형 제트수송기와 Mil-

17 헬리콥터의 비행으로 마무리되었다.

일인 독재 국가인 북한은 모든 상업활동이 국가에 의해 독점적으로 관리 및 통제되고 있었고 거리의 작은 몇몇 노점상만 예외적으로 운영되고 있었다. 또 다른 흔치않은 모습은 해외 방문자들이 항상 북한의 가이드와 함께 움직여야 한다는 것이다. 북한 주민들과의 접촉은 엄격히 제한되었으며 버스에서 손을 흔드는 것도 차금지되었다.

활주로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서 과자, 장난감, 옷, 기념품을 판매하는 노점상들이 손님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북한에서 영어로 소통하는 것은 불가능하였으며 몸짓 미소 또는 사진촬영을 통해 교류할 수 있었다. 저녁에는 도시 중앙에 위치한 원형극장에서 음악과 함께 공연을 열었다. 방문한 사람들을 비롯하여 노래와 춤을 좋아하는 북한 사람들 모두 즐길 수 있는 장소였다.

에어쇼 둘째 날(9월 25일)

맑은 날씨였으나 전날보다 약간 추웠다. 놀랍게도 전날 비행을 선보인 항공기들이 모두 전시되어 있었다. 가까이 다가가서 직접 살펴보기도 하고 촬영도 가능했다.(관리자들이 방문객들의 행동을 철저히 주시하며 직접 만지거나 기기의 작동을 시도하려는 것을 방지했다.)

MiG-21 여성파일럿이 등장하며 모두의 이목을 끌었다. 거의 모든 기자들이 다가가 그들의 등장을 촬영하며 통역을 통해서 많은 질문을 던졌다. 조종사들과의

면담이 끝나자 북한군 및 체코와 미국등지에서 참가한 스카이다이빙 팀의 고공낙하 공연이 시작되었다.

둘째 날 일정의 대부분은 고려항공 여객기들의 멋진 비행이 차지했다. 대략 17대의 항공기가 비행을 선보였는데 그중에는 고려항공의 An-24, Tu-134, Tu-154, Il-18, Il-62, Il-76, Mil-17 등의 기체와 육군의 An-2(실제는 중국이 생산한 Y-5), Mil-8 그리고 General Aviation Piper Matrix P-750 단거리이착륙 수송기가 있었다.

일정을 마치고 에어쇼 서포터즈 참가 그룹은 다시 활주로의 뒤쪽으로 에스코트 받아 이동하여 에어쇼의 폐막을 알리는 간단한 연설을 들었다. 일행들 대부분이 에어쇼의 일정은 다 끝났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대략 5천에서 만 명 정도 되는 사람들이 도시 광장에 모여 펼쳐진 춤 공연장으로 안내되었다. 해외방문객들은 자유롭게 그들과 어울릴 수 있었다. 이어서 저녁 연회가 원산 중심지에서 열렸다. 평양으로 돌아가는 비행편 Il-62가 6시 30분에 있었으며 베이징으로 향하는 연결편은 10시로 예정되어 있었다.

북한의 첫 에어쇼는 훌륭했으며 과감하게 공개된 북한의 항공기들을 잘 살펴볼 수 있는 기회였다. 이번 방문에는 북한 역사상 처음으로 해외 방문객들과 북한 주민들과의 교류에 많은 제한을 두지 않았다고 한다. 방문을 통해 확인한 북한의 모습은 세상과 교류를 할 준비가 되어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해외 방문객들은 이에 대부분 동의했다. (역자 주: 기술된 내용은 에어쇼 탐방기로 본지의 의견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



MD 500D 헬기

에어쇼 초반에 깜짝 등장한 미제 MD500 헬기. 1985년 당시 서독에서 87대를 말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사시 한국군이 300대가 넘게 운용하는 동종 헬기와 혼동을 주기 위한 목적으로 보인다.





Mig-21 전투기

북한 여성조종사가 조종하며 등장한 러시아제 MiG-21PFM 전투기. 에어쇼 둘째 날 기자들과 인터뷰 시간을 가지며 Mig-21 전투기보다 더 큰 관심을 받았다. 북한공군은 중국제 40여대를 포함 약 200여대를 도입했다. 1966년부터 Mig-21 F-13형 80대를 시작으로 1971년 65대의 개량형 Mig-21PFM을 도입한 후 1999년 카자흐스탄에서 38대의 최신형 MiG-21bis izdeliye 75A형을 도입하며 긴장감을 높인 바 있다. 현재도 북한공군은 150여대의 Mig-21을 주력기로 운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북한군의 3세대 전폭기인 Mig-23ML형은 에어쇼에 참가하지 않아 모습을 볼 수 없었다.





Mig-29 전투기

이륙하여 수직으로 급상승하는 모습을 선보였다.

북한이 보유한 가장 최신형 전투기로 현재 30여대의 MiG-29B/UB를 운용하고 있다. 주로 평양 방어용으로 운용하며 2003년 미 공군 RC-135 정찰기 요격에 나선 MiG-29가 개량형 C형으로 밝혀지면 서 도입 경위에 대한 논란이 일기도 했다.



Mig-29 전투기
에어쇼 금기사항중 하나인 관중들 바로 위에서 배면비행을 하여
모두를 놀라게 만들었다.



Mil-8 Hip 헬기

40여대를 수송 헬기로 운용하며 또 다른 파생형 Mi-14 Haze 수대를 대잠용으로 운용하고 있다.
개량형인 Mil-17 헬기를 VIP 수송용으로 소수 운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공군은
대형 수송헬기 Mi-26과 공격헬기 Mi-24 하인드헬기도 20여대씩 보유하고 있으나
이번 에어쇼에는 등장하지 않았다.

Su-25 대전차 공격기

현재 북한공군이 운용하는 가장 최신형의 근접항공지원용 공격기로 러시아로부터 34대의 Su-25K를 도입하였다. 미 공군 A-10 공격기와 맞먹는 대전차 공격용 항공기다.





Su-25 대전차 공격기
북한공군은 이외에 Su-7BMK 공격기와 중국제 A/Q-5II 공격기도
보유하고 있지만 에어쇼에 나타나지 않았다.



An-2 수송기

북한이 대남침투용으로 무려 300대를 운용하는 것으로 알려진 AN-2 수송기가 시범 비행에 나섰다.

단발엔진을 갖춘 구조연계 복엽 수송기로서, 시속 160km의 저속·저공비행과 레이더 회피가 가능한 경수송기다. 이번 에어쇼에 등장한 An-2는 기존의 기체와 달리 기체 아래쪽에 지형탐지레이더로 추정되는 둥근 장비가 보이고 기체 위쪽에는 GPS 안테나가 장착됐다.

그동안 불가능했던 야간비행이 가능해져 더욱 위협적인 비대칭 전력으로 급부상했다.

고려항공 Il-76TD와 Su-25

북한공군은 공식적으로 수송기를 보유하지 않으며 고려항공에서 수송기들을 운용한다. 외신보도에 의하면 Antonov An-24R/RV형 3대를 비롯, Antonov An-148-100B 2대, Ilyushin Il-18D 터보프롭 수송기 1대, 김정은 전용기로도 사용하는 Ilyushin Il-62M 제트기 4대, Tupolev Tu-134B-3 제트기 2대, Tupolev Tu-154B/B-2 제트기 4대, Tupolev Tu-204-100B와 Tu-204-300 각 1대 및 Ilyushin Il-76TD 제트수송기 3대 등 총 21대를 보유하고 있다.





고려항공 Il-18D 북한군으로 보이는 스카이다이빙 팀.



퍼시픽 에어로스페이스 P-750 초단거리이착륙기(XSTOL)

북한 에어쇼에 깜짝 등장하여 서방을 놀라게 한 항공기다. 뉴질랜드가 중국에 수출했지만 북한이 운용하고 있어 대북제재가 중국 때문에 무용지물임을 보여준다.

미국산 부품이 사용된 P-750은 스카이다이빙 등 민간 용도로 사용되지만 공수부대 등 군사적으로도 사용할 수 있어 북한으로 수출이 금지된 품목이다.